

세계는 지금 클러스터 ‘붐’

클러스터 육성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대적 요구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4일 기업연구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 10개 분야 115개 연구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공통핵심기술 해결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기 위해 클러스터(集積)를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과 품목별 유사 중소기업연구소를 한데 묶어 기업간 기술교류 및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5월 바이오클러스터를 16개 만들고, 2010년까지 재래시장을 재개발해 중소유통클러스터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 하반기부터 클러스터 법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클러스터 육성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클러스터를 기존의 산업육성정책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성장 전략으로 보기 때문이다. 클러스터는 무엇인가. 클러스터 도입을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앙일보와 삼성경제연구소가 세계적인 클러스터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나갈 길을 모색했다.

공단에서 클러스터까지

우리는 클러스터의 오랜 뿌리를 갖고 있다. 60년대 이후 만들어진 창원기계공단과 구미전자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가 바로 일종의 클러스터다. 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테크노 파크, 테크노 밸리, 테크노 타운 등도 ‘변종’ 클러스터다.

정통부가 '96년에 시작한 경기도 판교와 서울시 상암지구 IT집적단지,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단지 등도 클러스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산업 선진국의 클러스터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아무것이나 한곳에 모아놓는다고 하여 클러스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업종의 관련 기업과 지원기관이 모여 정보와 지식을 공유해야만 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다. 이를테면 연구개발·생산·판매·금융 등 각 기능을 한곳에 모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생산과 연구개발, 금융을 한곳으로 모아놓지 못했다. 더욱 우리가 추진한 공단이나 테크노 파크 등은 싼값으로 공장을 분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기에 공단은 생산기능만 있고 연구개발, 판매 등 관련 기능이 없으며 대덕밸리엔 연구기능은 있으나 생산기능이 없는 기형적 클러스터가 양산됐다.

왜 지금 클러스터를 해야 하나

우리의 경우 재벌이 사실상 클러스터 구실을 해왔다. 연구개발·생산·판매·금융 등이 한 그룹 아래 모여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유망사업을 찾으면 자본과 사람을 분담해 위험을 분산하면서 대규모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재벌체제가 무너졌다. 우리 나름대로의 클러스터가 무너진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아직 미래를 책임질 핵심산업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수종산업의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장차 나라를 먹여 살릴 산업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클러스터의 육성은 절실할 수밖에 없다.

국가	클러스터 명칭	주요 특징
미국	미국실리콘 밸리(IT·BT)	성공 클러스터의 원형
	할리우드(영화)	세계 영화의 본산지
	샌디에이고(BT)	생명과학의 집결지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IT)	세계 2위의 무선통신
핀란드	울루 테크노 파크(무선통신)	핀란드 경제의 성장엔진
중국	중관촌(IT 등)	중국의 실리콘 밸리 지향
대만	신주과학공업연구(컴퓨터 등)	대만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이스라엘	실리콘 와디(IT 등)	해외 유대인 네트워크 활용
인도	방갈로르 소프트웨어 파크(IT 등)	인도의 실리콘 밸리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표1〉 세계의 성공 클러스터들

반면, 산업 선진국의 경우 클러스터가 곧 그 나라 발전의 척도 역할을 하고 있다. 대만의 신주(新竹)과학공업연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러스터다. 반도체, 컴퓨터 등 약 3백여 관련 업체들이 모여 있고, 국립청화대, 교통대 등의 대학과 공업기술연구원 등도 같이 있다. 대만 정부는 관리국(SIPA)을 운영하면서 입주 업체들간의 네트워크를 장려하고 있다.

신조어

키덜트(kidult) 족

‘키덜트’는 어린이(kid)와 어른(adult)을 결합한 신조어로, 어린이 같은 취향을 지닌 성인을 일컫는다.

진지한 것보다는 가볍고 예뻐하면서도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최근 사회 경향에 맞물려 키덜트족의 활동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또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세금감면과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의 초·중등학교는 영어와 중국어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거대기업과 해외인력의 유치를 위한 배려이다.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와 핀란드 울루테크노파크는 자국의 에릭슨과 노키아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IBM, 모토로라, 인텔, 시스코 등 다국적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아일랜드는 낮은 세율과 개방체제를 무기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만들고, 중국 IT클러스터인 중관촌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등의 연구개발센터가 있다.

이처럼 성공한 클러스터에는 대부분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이들은 세계 수준의 기술과 정보 습득을 위해 외국 기업이 들어와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세금 감면과 규제완화는 물론, 글로벌 수준의 교육과 문화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

클러스터를 성공시키려면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연구개발에서 판매까지 각종 관련 기업과 지원기관을 한곳에 모아야 한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연관 산업을 모았다고 하여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산자부 김종갑 산업정책국장은 “용인 소프트웨어 단지가 실패한 이유는 20~30대 인력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교육과 문화 등 각종 사회 인프라까지 구비되어야 진정한 클러스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의 참여도 클러스터 구성의 주요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외국의 경우 대기업들이 클러스터의 리더 역할을 맡아 자신이 해야 할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인근 중소·벤처기업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만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도 자주 만들어야 한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또 기술개발과 생산·판매도 효율적이

된다. 필요한 인력·기술·소재·부품 등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미래 수종산업에 투자하는 위험과 자금부담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윤종언 상무는 “클러스터의 비전을 누가 제공할지, 참여자들의 협력을 유도하고 조율할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앙 전하진 사장은 “양보다는 스타급 성공사례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나갈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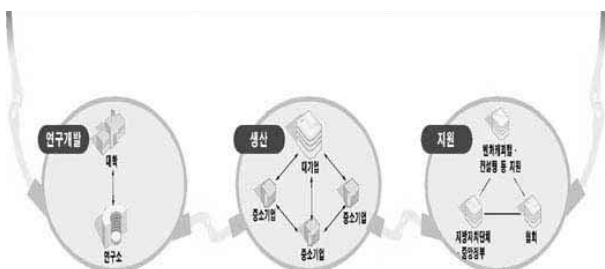
우리는 이제 막 클러스터 육성의 출발선을 떠났다. 미래산업을 찾지도 못한 틈에 중국 등 후발 산업국의 거센 추격이 버거운 지금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클러스터 육성은 시대적 요구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윤순봉 전무는 “5~10년 뒤에 우리를 먹여 살릴 수종산업 찾기에 클러스터는 필수적이다. 신산업 찾기와 고부가가치화는 제대로 안되는 우리 현실에서 클러스터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실리콘 와디, 인도의 방갈로르 소프트웨어 파크 등은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금 세계는 이들을 따라잡기 위해 경주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투자청 보고서에 ‘경쟁력있는 클러스터가 있다’며 외국자본에 손짓하고 있다. 핀란드는 무선통신 클러스터 울루 테크노 파크를 벤치마킹하겠다고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자 아예 돈을 받는 관광코스로 만들었다.

우리가 더이상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클러스터 육성에 우리 산업, 나아가 국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출처 : 중앙일보 · 삼성경제연구소



〈그림 1〉 클러스터의 유기적 관계

